

“추석 명절 외롭지 않게”...쓸쓸한 취약층 향한 온정들

독거노인·장애인 ‘나홀로 추석’
연휴 기간 복지사·이웃 단절돼
고독사·극단선택 등 우려 커져
곳곳 송편 전달·안부확인 행사

“자식들도 이제 나이가 많아 못 오는데 추석 명절이라고 다들 뭐 있나. 어느날 평소와 똑같이 잠에 들어 그대로 못 깨어나는게 소망이오.” 25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3동의 한 주택가. 65년간 이곳에 거주한 강순옥 할머니(95·가명)는 40여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살고 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강 할머니의 집은 텔레비전 소리가 없이 적막만이 흘렀다.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적힌 꽃바구니는 언제 받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낡은 먼지가 앉은 채 방 한 칸에 자리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한 동네를 지켜온 강 할머니는 수십년간 동네 이웃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야 했다. 명절이면 음식과 정을 나누며 함께 지내던 동네 주민들도 세월이 흘러 병이 들고 쇠약해지면서 하나 둘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강 할머니는 텅 빈 마을 골목을 보면서 외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 할머니의 다섯 자녀도 어느덧 칠순을 넘기며 발걸이 뜰해졌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이 모여 명절을 지낸 날은 기억조차 가물 가물한 옛날 일이 됐다. 강 할머니는 “옛날에는 명절이면 온 동네가 북적이고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명절인지조차 모르게 마을이 조용하다”며 “마지막으로 송편을 먹은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구는 양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돌봄이웃 60세대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송편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다. 강 할머니는 송편보다도 안부 확인자 방문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반가운듯 보였다. 적막이 가득했던 강 할머니의 집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할머니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할머니는 건네 받은 송편을 한 편에 미뤄둔 재직원들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오랜 시간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번 추석은 어떻게 지내냐’는 복지사의 질문에 강 할머니는 “추석이라고 평소와 다를 것 없다”며 “상경한 자식들이 예선, 칠순을 넘겼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냐”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래도 올해는 막내손자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하루 자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아쉽지만, 명절이라고 손주 얼굴 보면서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지역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수는 6만8,4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2만4,236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등 독거노인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보호·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긴 연휴 기간 동안 이웃과 단절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맞춤돌봄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사고발생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해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광주시 서구 양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추석을 앞두고 돌봄이웃 60세대를 방문해 송편을 전달하고 안부를 전했다. /김혜린 기자

5·18 투입된 군장비 자유공원에 전시된다 시, 활성화 방안 주민설명회

1980년 5월 당시 투입됐던 군장비가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해 광주 시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25일 서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 1층 대강당실에서 5월 단체와 치평동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자유공원 활성화 방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5·18당시 출동 군장비 영상 청취, 이전·전시 사업, 전시안, 관련자 의견수렴,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엔 전시 예정인 군장비는 시민군이 사용한 경장갑차와 M113장갑차, 지휘용 장갑차 등 장갑차 3대와 전차 1대, 헬기 1대다. 앞서 지난해 4월 옛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광주시에 출동기종 이전·전시를 제안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 2개월간 5·18교육관에 임시 보관되는 등 답보된 상태였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



25일 오후 광주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열린 ‘5·18자유공원 활성화 방안 주민설명회’에서 80년 5·18 당시 출동한 장갑차, 헬기 등 전시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제내 소통창구인 광주ON을 통해 전시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18 당시 진압 작전에 동원된 탱크·장갑차·헬기 전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 42.7%, 그렇다 36.1% 등 78.8%의 시민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군 장비는 5·18자유공원 내 영향 입구에 장

갑차 3대와 헬기 1대가 배치되고, 내부 실제 감렸던 장소 옆에 전차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12월 설계를 실시하고, 오는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민찬기 기자

집단폐사 비둘기 농약 검출 광주 서구, 경찰 수사 의뢰

광주시 서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집단 폐사한 비둘기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지난 17일 무더기로 발견된 비둘기 사체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보퓨란(carbofuran)이 검출됐다. 카보퓨란은 카바메이트계 독성 물질로 농약에 주로 사용되며, 소량이지만 조류 진드기 박멸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의 바이펜트린(bifenthrin)도 일부 사체에서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에 치명적인 농도의 농약이 검출됐고 비둘기는 카보퓨란 중독증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분 검사 결과를 서구에 통보했다. 서구는 누군가 해당 성분이 섞인 모이를 비둘기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고 서부경찰서에 이날 오전 수사를 의뢰했다. 비둘기 사체들은 지난 17일 낮 12시 58분께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발견됐다. 신고받고 현장에 나간 서구는 일부 사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김혜린 기자

www.shsa.kr

창립 특별할인 행사 20TH 삼성전자 B2B 호남매출 1위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유)하우젠공조시스템

대형건물용 **신12기** 시스템에어컨 360

대형건물용 **신12기** DVM S2

대표이사 **신철우**

Certificate of Samsung Star Partner

서광주IC,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용봉진입로, 문화소통로(일방통행로), KFC, 대계수산, LG전자용봉점, 전자랜드용봉점, 용봉지구대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영업모집

○ 정규직 2명 ○ 프리랜서 수시
※ 남녀 연령 무관 / 출퇴근 자율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